

종합·해설

대선 50여일 앞 '지지율 大戰' 접화

대선이 불과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여야 대선 주자들이 지지율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며 이달 말까지 형성될 민심의 향배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달 말까지 형성된 여론의 향배에 따라 범여권 후보 단일화 구도는 물론 '이명박 대세론'에도 영향을 예상되는 등 대선 구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이다.

우선 정치권에서는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이번 달까지 50%대의 고공 지지율을 유지할 것인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경준씨 귀국 논란으로 이명박 후보의 BBK 주가 조작 사건 연루 의혹이 확대되고 있는 데다 범여권 후보 단일화 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50%대의 고공 지지율 붕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후보 측은 범여권의 집중적인 네거티브 공세를 외면하고 다음달 중순까지 전국을 도는 '국민성공대장정'에 나서면서 50% 인력의 지지율을 사수하며 '이명박 대세론'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또 정동영 대통합신당 후보의 여론

이명박 '국민성공대장정'으로 50%대 사수
정동영 호남·수도권 기반 월말 30%대 견인
이인제·문국현 후보는 10%대 확보 급선무

조사 지지율 25% 돌파 여부도 관심이다. 지난 15일 당내 경선 승리 이후, 정 후보의 지지율이 두 배가량 상승하면서 여론조사에서 15~18%대를 기록하고 있지만 범여권 대권주자로 자리 매김 하지는 아직 미흡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정 후보가 이달 말까지 최소한 10%대 이상 지지율을 높이지 못한다면 후보단일화 압력 등에 시달리는데 후보단일화 압력 등에 시달리는데

이에 대해 정 후보 측에서는 호남 민심의 선택과 집중으로 수도권 민심에 영향을 받고 있어 이번 주에 지지율 25%대를 돌파하는 것은 물론 이달 말에는 지지율이 30%대에 접근할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 4~6%대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이인제 민주당 후보는 일단 지지율을 10%대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급선무다.

이인제 후보의 지지율이 이달 말까지 한 자리 숫자에 머문다면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범여권 대표 주자로 나설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미니 정당인 민주당 내부의 동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별다른 지지율 상승 계기가 없다는 점이 고민거리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 후보의 지지율이 5% 이상만 유지하더라도 대선 과정에서 캐스팅 보트를 쥐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7~9%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창조한국당(가칭)의 문국현 후보도 이

달 말까지 10% 전반 대의 지지율 확보가 관건이다.

이달 말까지 문 후보의 지지율이 한자리 수에 머무른다면 대선 주자들의 동력 상실의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선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데다 경쟁 후보들에 비해 조직과 지역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에서 여론의 뒷받침 없이는 범여권 대선 주자로 부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문 후보 측에서는 민주·개혁 진영의 가세가 속속 이뤄지면서 문 후보의 지지율은 이달 말까지 10%대를 넘어서 다음달 중반에는 20%대에 육박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2~3%대의 지지율에 머물고 있는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후보는 이달 말까지 최소한 5%대의 지지율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권 후보가 지지율 제고에 실패한다면 이번 대선 구도에서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가칭 '창조한국당' 광주·전남 창당대회가 20일 오후 서구문화센터 대강당에서 문국현(왼쪽에서 두번째) 당 대표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문국현 "이명박 후보 실패한 기업인"

광주시당·전남도당 창당대회 참석 맹비난

창조한국당(가칭) 문국현 후보는 20일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성공한 기업인이라는 환상과 허구가 있지만 실상 그는 실패한 기업인이고, 약력 기업인"이라며 이 후보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창조한국당 광주시당·전남도당 창당대회 참석차 광주를 방문한 문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가 일했던 현대건설은 거의 망하다시피 해 10여년간 국가 관리를 받았고 기업이 망하는 와중에도 이 후보와 친 인척은 몇천억 부자가 됐다"고 비난했다.

문 후보는 이어 "가치·정책 논쟁을 불러일으키면 민주개혁 세력에 실망

하고 이 후보 지지로 돌아선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며 "창조한국당 창당 작업이 마무리되는 11월 중순 이후 가치·정책 중심의 대연합이 실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후보는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노무현-문국현 연대설'에 대해서는 "장관직을 수차례 제의받았지만 모두 사양했다"며 "사양했다면 뭔가 안 맞는 게 있어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인데도 자꾸 가깝다고 주장하니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노 대통령을 한번 만나봐야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 공약으로 영종도 공항에 맞먹는 세계적 공항 건설, 산학 클러스터 조성 등을 제시했다.

이날 오후 광주 서구문화센터에서 열린 광주시당·전남도당 창당대회에는 문 후보를 비롯 김태홍 대통합민주신당 의원, 정범구 중앙당 창당 준비위원장, 정철용 광주환경운동연합 고문, 정구선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상임의장, 전승수 전남대 교수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대회에서 광주시당위원장에 이근우 변호사가, 전남도당위원장에 는 서창호 목포대 명예교수가 각각 선출됐다.

중앙당 창당대회는 다음달 4일 열릴 예정이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만나려는鄭... 외면하는李

鄭 "양강구도 구축" 李 "현 구도가 유리"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어떻게든 만나려고 하지만 이 후보는 이를 외면하는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정 후보는 토론회등 행사에서 마주치는 것인데 이 후보와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어 '양강 구도'를 굳히려 하는 의도가 있다. 반면 이 후보는 정 후보의 상승세를 경계하며

정 후보와 같은 반열에 서는 것을 꺼리는 것이다. 일종의 하향 평준화를 막겠다는 시도인 셈이다.

지난 18일 세계지식포럼 기조연설에서 두 대선후보는 정 후보의 대선후보 확정 이후 처음 조우했지만 어색한 듯 짧은 인사만 나눴다. 당초 두 후보의 기조연설 시간이 30분 차이가 나 만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조금 일찍 도착한 정 후보는 행사장에서 나오던 이 후보를 잠시 기다렸다가 다가와 악수를 청하자 이 후보는 다소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그러나 몇 시간 후 열린 전국여성대회 행사에는 이 후보가 다소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만남은 불발됐다. 이에 대해 정 후보 측 관계자는 "이 후보가 정 후보를 의식해 연설순서를 뒤쪽으로 바꿨다"고 주장했으나 이 후보의 측근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부인했다.



특히 정 후보 측은 이 후보와의 '맞장 TV토론'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후보 측은 "범여권 단일후보가 되기 전까지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 일간지는 정, 이 두 후보 간의 대담을 기획했으나 이 후보 측이 난색을 표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100만 민중대회' 지지 호소

민노당 권영길 후보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20일 광양을 찾아 다음달 11일 열릴 예정인 '100만 민중대회'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지난 19일 순천을 시작으로 호남지역 민생투어에 나선 권 후보는 이날 광양 대한시멘트 공장에서 민주노동당과 한국노총 조합원 40여명과 간담회를 갖고 "민주개혁, 사회양극화가 더 심해지면 죽어가는 사람은 결국 노동자, 농민, 빈민들"이라며 "민중 총궐기를 통해 신자유주의의 흐름을 끊어낼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후보는 이에 앞서 아파트 회사의 부도도 피해를 본 광양읍 모 아파트 임차인 대표들과 만나 "국가가 주택문제를 책임져야지, 토지공사가 집을 갖고 장사하고 주택공사가 집을 갖고 장사해서는 안된다"며 "토지를 국가 소유로 하고 주택에 대해서는 공개념을 도입, 1가구 1주택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오늘의 국감

▲환경노동위=영산강유역환경청(오전 10시·국회)

DJ, "이젠 뭔가 되겠구나"

정동영 후보 예방 자리서 대선 구도 피력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대선후보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향후 대선 구도와 관련, "잘 될 것 같다. 이제 뭔가 되겠구나"라며 긍정적인 전망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당 핵심관계자는 21일 "김 전 대통령과 정 후보의 비공개 면담에서 김 전 대통령은 '경선이 잘 끝났으니 이제 제 할 일을 잘 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신당내 초·재선 386 의원들을 향해선 "대선국면에서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취지로 강력히 비

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당 관계자는 "DJ가 '386 의원들이 배낭을 메고 다니면서 휴대전화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깃발을 들고 현장을 돌아다녔으면 민심도 많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386 의원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취지로 386 의원들을 격하게 비판했다"고 전했다.

김대중 평화센터 고문을 맡고 있는 최재천 대선기획단 대변인은 "지난 9월 DJ 방미 때 비공식 수행을 했었다. 그때 김 전 대통령이 나에게 '너는 뭐하고 있느냐. 중진, 초선이라고 해서 대선국면에서 손놓고 있는 것은 잘못됐다'고 질책한 바 있다"며 "DJ는 최근 대변인 임명소식을 접하고 난 뒤에도 나에게 '잘 해라. 실수하면 안된다'고 말해 공포스러운 정도로 이 말을 가슴에 새기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광고접수안내

광주일보 안내광고 원고는 FAX로 접수하고 광고료는 아래 은행계좌에 입금해주시면 신속히 게재해 드립니다.

◆ 직통: (062)227-9600, 220-0524, 0525
◆ FAX: 227-9500

구인·구직·윤전·모집·초빙·영업·모임
사실금융·매입·부동산·매매·임대·전세·분양

◆ 광주은행: 001-107-228160 ◆ 동월: 617-01-108334
※ 예금주(주) 광주일보사

새특공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2008년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는 지금부터 전문학원에서 단계적으로 준비하십시오.
기초과정 → 기본이론 → 심화이론 → 핵심요약 및 문제풀이 → 총정리과정 → 합격

개강 11월 12일(주,야) **연회원특혜 50명 선착순** 국비무료 **361-8111**
www.gjserom.com 수강료 특별할인 **529-8111**

공인중개사전문/전국합격을 1위!

새특공 행정고시학원 새특공 공인중개사전문학원

▶ 새특공 행정고시학원 새특공 공인중개사전문학원

▶ 새특공 행정고시학원 새특공 공인중개사전문학원

급매

국도변

◆ **니주·남평역 인근**

◆ **남향투자 최적지**

◆ **22,353㎡ (7,000평)**

◆ **주인직접 (평당3만)**

010-7704-0052

건설업면허 양도·양수

귀사의 성공적인 사업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업무내용

- 건설업 면허 (법인) 양도·양수
- 법인 M&A(분할 합병)
- 건설업 신규등록 대행
- 기업진단 (공인회계사)
- 공제조합 출자금 대납
- 기타 건설업의 업무상담

(주)우성건설정보

본사

TEL : (02)587-7400
FAX : (02)597-8855

호남지사

TEL : (062) 226-6300
FAX : (062) 943-2244

급매

태양광 발전소 및 연수원 예정부지

- ◎ 전남 보성군 회천면 영천리
- ◎ 관리지역 임야 85,950㎡
- ◎ 분할가능, 정남향
- ◎ 전력380kw 설치됨
- ◎ 매매가는 상담후 결정

연락처

062)236-0764
010-6889-7100

산행안내

10월 23일(화)

- ▲ 바림산우회 (회) 봉선 특평면 모곡산 10월 23일(화) 07시 50분 열주체육관(문예회관경유)출발 T.010 9000 6920
- ▲ 범주산악회 지리산 현형봉 10월 23일(화) 08시 연주체육관(문예회관경유)출발 후 선곡순예약주수 T.011-606-2208

10월 24일(수)

- ▲ 정독산악회 구안 호시산 10월 24일(수) 08시 광주교외공예출발 T.010-6660-5665

10월 25일(목)

- ▲ 광주한국산악회 지리산 롯데백(분봉산행) 10월 25일(목) 07시 50분 열주체육관(문예회관경유)출발 T.011-625-2279
- ▲ 가교파산악회 진북 삼수 봉골산 10월 25일(목) 07시 광주교외공예출발 T.011-606-2208

10월 27일(토)

- ▲ 나사모산악회 지리산 거평-대무봉 10월 27일(토) 06시 30분 열주체육관(문예회관경유)출발 후 선곡순예약주수 T.011-606-2208
- ▲ 광주구룡산악회 천안산 배암사,양구산악,유지전방대(나사모산악회) 11월 2일 10월 27일(토) 06시 구룡정(장진리)출발 http://cafe.daum.net/kwrt T.017-602-0077, 011-602-3263
- ▲ 광주금강산악회 전북 대정산 줄주 10월 27일(토) 07시 30분 열주체육관(문예회관경유)출발 후 선곡순예약주수 T.011-606-2208
- ▲ 광주한길산악회 후대산 : 박2 10월 27일(토) 07시 광주역(문예회관경유)출발 http://cafe.nets.com/7ang T.222-3253, 010-7619-0359
- ▲ 무등도산악회 경복청송 주왕산 10월 27일(토) 06시 시정(문예회관경유)출발 http://cafe.daum.net/rudeung T.029-2010 9942 8000

10월 28일(일)

- ▲ 지리보초산악회 선악산 부락2 10월 27일(토) 22시 무등경기장 출발 http://cafe.daum.net/AYN SAN T.011-666-3291
- 10월 28일(일)
- ▲ 대한산악연맹광주파인클럽 영암 원촌산 10월 28일(일) 07시 동남하이마트(영주)출발 후 선곡순예약주수 T.010-9445 9844
- ▲ 광주산악회 대구 광곡산 10월 28일(일) 07시 열주체육관(대인)광장,삼천출발 후 선곡순예약주수 T.011-606-2208
- ▲ 광주유림산악회 불산 원양산 10월 28일(일) 05시 30분 상부지구구락부(무등)출발 후 선곡순예약주수 T.011-9003 9581, 011-605-8507
- ▲ 광주원산악회 제25차 내상산 근주산행 10월 28일(일) 07시 30분 원산(광주)출발 후 선곡순예약주수 T.011-606-2208